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

지평은 타인 투자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 및 원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이유로 건보공단(피고)으로부터 의료법상 복수개설금지 규정위반이 적용되어 약 2년치 의료비 약 75억 원 전액 환수처분을 당한 의료인(원고)을 대리하여 수행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아시아투데이 - 법원 "'사무장 병원'과 '네트워크 병원' 불법성 달라" ...튼튼병원, 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\(2016. 10. 3.\)](#)

[담당 변호사]



김성수 변호사



박성철 변호사